

대행 스님

실천이 없다면 이건 죽은 불교지 산 불교가 아닙니다

… (녹음 안됨)

"기우제를 지내려면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지내면 됩니다." 하고 나라에다 고했습니다, 힌두교에서. 그래서 나라에서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선 이 스님네들한테 청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댑니다. 한쪽은 청해 올라갔고 한쪽은 청해 올 때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란 것은 아닙니다. 역시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간에 그건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하는 일이고 진리이니까 그러겠지마는 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쌈이 붙었던 거죠. "너희가 해 봐라.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하겠다. 기우제를 지내고 안 지내고 간에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우리도 기우제를 어찌 지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해 보고 비가 안 온다면 우리가 그때 하겠다." 하고서 쌈이 벌어졌죠. 그 기우제를 지내는 데는 세 개의 탕을 해 놓고서는, 옷을 다 벗고 목욕재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과일서껀 깨끗이 씻어서 사람이 쭉 늘어서 가지고선 받아서 이렇게 해서 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단으로부터 중단, 상단으로 씻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갖은 물건을 다 해 놓고서 기우제를 사흘이나 지내도 비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재차 또 사흘을 지내도 안 와서 재차 또 사흘을 지내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우제는 다 끝났죠.

그런데 이 스님네들이 "너희들은 우리 기우제 지내는 걸 와서 구경을 해라." 했습니다. 그러고선 스님네들은 부처님한테 가서 여쭸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데, 힌두교에선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기우제를 지내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여쭤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선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니까 "그 힌두교의 스님네들을 위해서 내가 기우제를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마."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떼 놓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그, 뭐라고 말을 할까. 말로 할 수 없으리만큼 성스러웠습니다.

그러시다가, 척 걸으시다가 딱 중단하시고는 앉아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떡 하나라면…." 하셨습니다. "이 떡 하나라면 기우제는 다 지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스님네들은 망발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별안간에 천둥 번개를 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철철 와서 갈라진 땅을 메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힌두교 제자들 한 대여섯 명이 부처님 앞으로 공부를 한다고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부처님께서 정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정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들어서 정법을 써 보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곤 또 입을 딱 다무시는 겁니다.

그 힌두교에서 온 사람네들은 거기서 수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을 지내도 도무지 그것이 자기네들한테는 확연히 씨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 저쪽 편 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으르렁으르렁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으로 치면 총무 스님이 부처님한테 고해서 그 네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어디로 내보냈느냐 하면 "너희들이 더 했느니 덜 했느니, 많으니 적으니 하고 싸우는데 네 사람이 나가서 탁발을 하되 너희 재주껏 탁발을 해 가지고 오너라." 하고 네 사람을, 힌두교에서 온 사람들을 다 내보내면서 한 사람만 딱 더해서 보냈습니다. 그래 다섯 사람이 탁발을 하러 나갔습니다. 제각기 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공부 가르치는 것도 참 천차만별로 그렇게 다사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내보냈는데 한 사람은 농사짓는 데를 갔습니다. 어느 골짜기로 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논을 갈고 있어요. 논을 가는데 그렇게 말라빠진 노인이 큰 황소를 밀고 나가려니까 힘이 들어서 쩔쩔매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스님이 그걸 자기가 쥐고 다 해 드렸더니 거기서 그 대가로 보시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한 것을 받아 가지고 걸망에 넣고 짊어지고 흥녀케 절로 왔습니다.

한 분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상인들 있는 데로 갔습니다. 상인들이 양을 여덟 마리를 놓고 파는데 어떤 사람이 양을 돈을 주고 사긴 샀는데 사다 보니까 여덟 마리가 그만 뿔뿔이 헤어져서 다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스님이 그걸 보니까 안됐어서 여덟 마리를 다 붙잡아서 한데 모아서 그분에게 줬습니다. 고마웠다고 또 보시금을 주니까 또 넣어 가지고 절로 흥녀케 왔습니다.

한 분은 또 딴 데로 갔는데 아, 어딜 가려고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문 앞 추녀 끝 밑에서 밤을 새우고 가려고 앉아 있으니까 안에서 왁자지껄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선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아, 화가 난 듯이 문을 박차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박차고 나오는 사람더러 물었죠. "어째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사 형제가 있는데 부모가 놔두고 가신 유산이 있어서 사 형제가 다 나누었는데 딱 한 가지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던 바, 한 가지 나누지 못한 거는, 그 집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를 나누어야 할 텐데 그걸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누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나누기는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습니까?" 하니까 "네 다리가 있는 거를 한 다리 부분, 한 다리 부분, 한 다리 부분, 한 다리 부분 넷으로 짜개어서 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는데 글쎄, 오늘 쌈 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쪽 다리 한 부분이 그만 다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솜을 처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만 거기 불이 붙어선 그 좋은 물건이 다 타 버렸습니다." 이거야. 이런 데선 안 그렇지만 거기에는 방에다가 불을 넣는 그런 이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한 부분 맡은, 다리 다친 부분의 그 사람이, 동생이 타 버린 거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쌈이 붙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자고 그랬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이 스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분이 다 앉아서 들으십시오." 하고 스님이 조용히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이 다리나 이 다리나 이 다리나 이 다리나 한 다리 가지곤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 다리도 여기 동조를 했고, 당신 다리도 동조를 했고, 당신 다리도 여기 동일하게, 망본 놈도 도둑놈이고 또 도둑질한 놈도 도둑놈이고 그러니까 전부, 도둑질을 한 놈이 다 바로 이놈입니다. 그러니 이 네 다리는 사 형제분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거든.

"그러니 이것은 누가 물고 누가 더 내고 갚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까, 사실은 들어 보니까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 남기신 거를 올바로 정리해서 주고 서로 웃고서 화합이 되게 그 집안을 이끌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서. 그래서 그 스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덕분에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사 형제가 엇각이 나질 않고 살게 됐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했기에 받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 절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한 분대로 어디쯤 가니까 말입니다, 어느 집에 닭이 생전 울지를 않더랍니다. 새벽이 되면 닭이 울어야 할 텐데 닭이 울지 않는다고 아주 주인이 한 성화를 했습니다. 닭이 울어야 새벽이면 일어나서 논에 물도 주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닭이 울지 않으니 도대체 우리가 닭을 갖다 놓기만 하면, 딴 데서는 우는데 우리 집만 갖다 놓으면 울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스님, 이 노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스님은 "닭이 울게 하려면,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나 자신과 그 닭 자신하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아침이면 꼭 당신을 깨워 줄 겁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튿날 아침에 "꼬꼬댁"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기뻐서 그냥 보시금을 듬뿍 당나귀에다 하나 가득 실어서 줬습니다. 옛날에는 당나귀가 아니라 그때에 거기에서는 수레에 실어 줬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어디를 가다 보니까 인군이 참, 예전에는 아마 코끼리를 타고 다녔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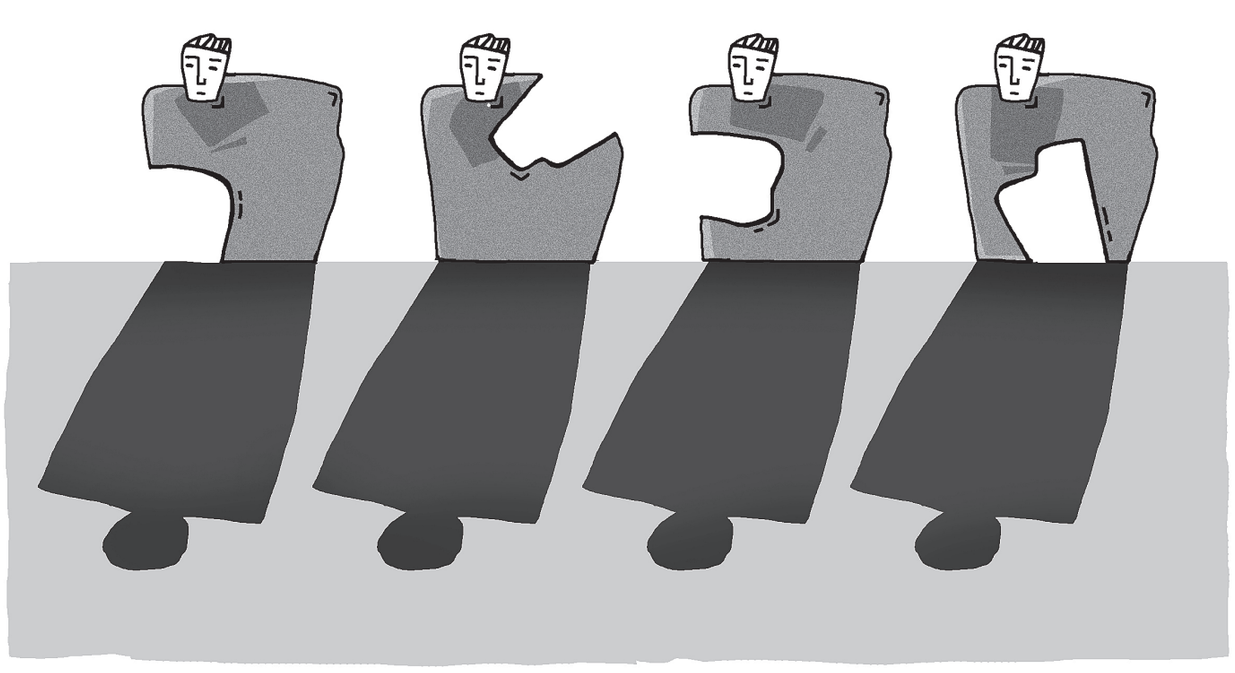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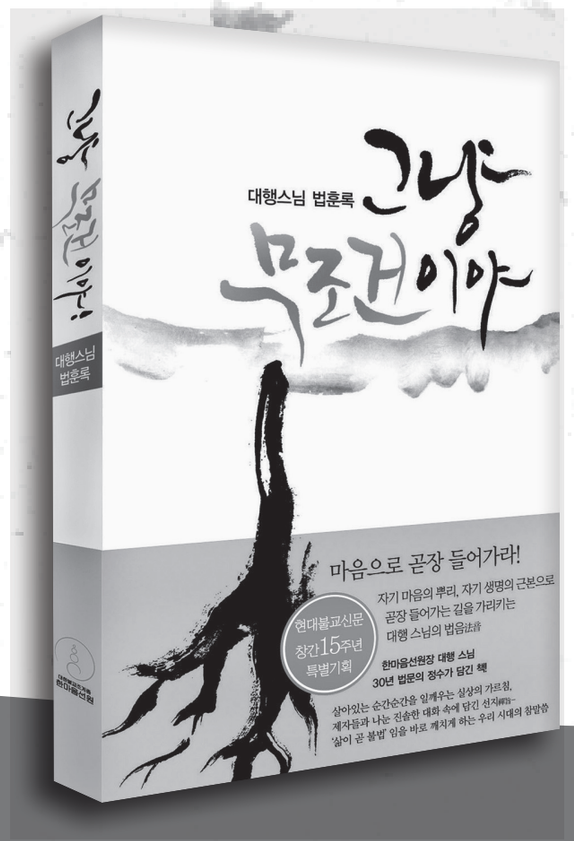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